해운대 관광의 탄생*

- 식민지 시기 해운대온천의 개발과 표상 -

조정민** · 이수열***

〈차 례〉

1. 서론
2. 해운대의 자연과 낭만주의-흰 백사장과 푸른 소나무
3. 보양 여행과 가족 여행의 메카, 해운대온천
4. 두 겹의 근대-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해운대가 관광지로 발견, 조성되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개항기와 식민지시기에 주목하여 일본에 의한 공간 생산 및 공간 표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해운대가 온천으로 개발되고 관광지로 조성되는 과정에는 해운대 자연에 대한 식민자의 낭만주의적인 시선이 투사되어 있었고, 이러한 시선을 통해 해운대는 보양 여행(건강 증진)과 가족 여행(가족의 발견)의 메카로 조성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부산의 원도심 공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 제1저자.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 교신저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교수

간에서 보여준 근대적 심벌들, 예컨대 영도대교나 부산부청(釜山府廳) 등과는 구별되는 근대 휴양 시설을 해운대에 조성하여 또 다른 층위의 근대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는 원도심과 해운대에서 층위가 다른 두 겹의 근대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하에서는 해운대 관광의 시작과 전개를 검토하고 나아가 해운대가 부산에서 어떠한 근대적 공간으로 서사되고 재현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식민도시 부산의 로컬리티를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피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해운대온천, 근대 온천지, 낭만주의, 자연, 가족여행, 보양여행

1. 서론

매년 여름이 되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장소가 있으니, 그곳은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이다. 모래사장에는 파라솔이 줄지어 서 있고, 바다에는 물이 반 사람이 반이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언제부터 피서지, 휴양지의 메카로 자리 잡았을까. 사실, 해운대가 세간의 주목을 받아 휴양지로 인식된 계기는 시원한 해수욕장이 아니라 따뜻한 온천 때문이었다. 매년 정월대보름이 되면 '해운대달맞이·온천 축제'[1]가 열리는데, 이 때 해운대구청 앞 온천비 앞에서는 신라 말 진성여왕 시절에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던 '태평성대무'가 재현되고 진성여왕의 피접(避接) 행렬이 이어진다. 이

1) 달맞이·온천축제는 (사)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해운대구와 부산시가 후원하는 정월대보름 전국 대표축제이다.

는 진성여왕이 해운대온천욕으로 천연두가 깨끗이 나았다는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축제로 재구성한 것이다.

해운대온천의 유래를 고문헌에서 찾아 볼 수는 없지만, 옛날에 왕후나 고관들이 자주 방문한 탓에 그 부과(賦課)를 참을 수 없게 된 주민들이 용출구를 막아버렸다는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다.[2] 해운대온천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진 시기는 개항기이다. 당시 부산에 살던 일본인 의사 와다노 시게루(和田野茂)는 1905-1906년 경에 해운대의 남새밭을 매수하여 그곳에서 용출되는 온수를 이용해 우물을 파서 욕탕을 만들었다. 와다노 시게루가 의사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는 요양소와 같은 시설을 만들고자 한 것은 아닐까 하고 여겨진다.[3]

그러나 와다노 시게루가 개발한 온천은 온도가 낮았고 교통편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해운대온천은 한동안 방치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그곳에 거주하던 이와나가 요네키치(岩永米吉), 요다 젠로쿠(依田善六), 와타나베 헤이시로(渡辺平四郎) 등의 자산가들이 시추기를 이용해 지하 10미터 되는 곳까지 굴착하여 1911년 가을에 섭씨 52도 전후의 온천을 찾아내어 온천장을 개업했다. 1913년에 이와나가는 여관 해운루(海雲樓)를 신설하고 이듬해 1914년에는 해운대와 동래를 잇는 도로를 개통하였다. 그리하여 하루 4번 왕복하는 자동차 편과 부산에서 출발하는 조선 우편선(국내 항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자 해운대는 점차 온천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4] 그 뒤, 1931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근대적인 건물 '해운대 온천관'이 마련되고, 1937년에 부산에서 해운

2) 海雲台溫泉合資會社 編, 『海雲台溫泉案內』, 海雲台溫泉合資會社, 1936, p. 2. : 다케쿠니 토모야스 지음, 소재두 옮김, 『한국온천이야기』, 논형, 2006, p. 197.

3) 다케쿠니 토모야스 지음, 소재두 옮김, 앞의 책, p. 197.

4) 다케쿠니 토모야스 지음, 소재두 옮김, 앞의 책, p. 198. : 제길우・김용욱, 『부산온천에 관한 연구』, 친학사, 1964, p. 147.

대를 거쳐 울산, 경주로 통하는 조선철도국의 동해남부선이 개통되면서 해운대 관광은 본격화되었다. 이후 해운대는 온천 외에도 해수욕, 골프, 수학여행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여행객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는데, 이는 지금의 해운대가 휴양이나 피서, 레저, 관광 등의 장소로 소비되는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고는 해운대가 관광지로 발견, 조성되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개항기와 식민지시기에 주목하여 일본에 의한 공간 생산 및 공간 표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해운대가 온천으로 개발되고 관광지로 조성되는 과정에는 해운대 자연에 대한 식민자의 낭만주의적인 시선이 투사되어 있었고, 이러한 시선을 통해 해운대는 보양 여행(건강증진)과 가족 여행(가족의 발견)의 메카로 조성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부산의 원도심 공간에서 보여준 근대적 심벌들, 예컨대 영도대교나 부산부청(釜山府廳) 등과는 구별되는 근대 휴양 시설을 해운대에 조성하여 또 다른 층위의 근대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는 원도심과 해운대에서 층위가 다른 두 겹의 근대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하에서는 해운대 관광의 시작과 전개를 검토하고, 해운대가 부산에서 어떠한 근대적 공간으로 서사되고 재현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식민도시 부산의 로컬리티를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피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5)]

---

5) 부산의 근대성 혹은 식민성을 다루는 대부분의 논고는 일본인들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밀집해 있던 중구와 영도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공간과 전통적인 공간인 동래와의 비교를 통해 식민도시 부산의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논고도 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오미일, 「개항장과 이주상인-개항장도시 로컬리티의 형성과 기원」,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47, 2008, pp. 40-79.: 전성현, 「일제시기 동래선 건설과 근대 식민도시 부산의 형성」,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2009, pp. 225-269. : 김동철, 「근대 부산의 교통 발달과 기록-기차와 전차를 중심으로」, 한국기

2. 해운대의 자연과 낭만주의
- 흰 백사장과 푸른 소나무

도로와 철도, 증기선과 같은 교통의 발달이 관광의 형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철도가 등장하기 이전의 관광은 번잡한 세속을 떠나 내적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순례나 심신단련, 치병, 상행위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철도가 부설되면서 공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되자 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 환경이 형성되었고 또 여행 안내서를 통해 명승지와 유람지, 여관, 요리점 등이 소개되면서 여행은 점차 대중화되어 갔다.[6)]

해운대 관광의 시발 역시 도로와 철도라는 교통망의 정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해운대는 철도가 부설되기 이전인 1910년경부터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1914년 동래와 해운대를 잇는 도로가 건설되어 하루에 4번 자동차가 왕복하고, 또 부산에서 출발하는 조선 우편선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해운대는 점차 온천지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같은 시기인 1913년에 해운대의 대표적인 여관 '해운루'가 신설되고 이어서 1918년에 대욕장과 가족탕, 모래탕, 낙수탕 등의 신식 시설이 갖추어지면서 해운대는 온천지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게 되었다. 1927년에는 동래와 해운대 사이의 도로가 확장되고, 또 1931년에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의 근대적인 시설 '해운대 온천관'을 세운 아라이 하쓰타로(荒井初太郎,

---

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 2011, pp. 253-271. : 변광석, 「한말-일제강점기 동래지역에서의 공간 포섭과 지역세력의 대응」, 부경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29, 2011, pp. 295-326. : 양흥숙, 「개항 후 초량사람들과 근대 공간의 형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44, 2012, pp. 211-249.

6) 성주현, 「철도의 부설과 근대 관광의 형성」, 『시선의 탄생, 식민지 조선의 근대관광』, 선인, 2011, pp. 205-211.

아라이구미 대표)가 다음 해에 해운대온천기업회사를 설립하고(본점은 경성) 해운대 일대의 토지 약 30만 평을 매수하여 부동산업 외 온천 풀장 등의 사업을 전개하면서[7] 해운대는 여행지로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이후 해운대는 동해남부선 부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요양지이자 관광지로 더욱 주목 받게 된다.[8] 실제로 1934년에 동해남부선 해운대-좌천 구간의 철도가 개통되고, 이어서 1937년에 부산에서 해운대를 거쳐 울산, 경주로 통하는 철도가 개통되면서 해운대를 방문하는 온천객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당시 부산에서 신라의 고도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해운대에서 1박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9]

근대적 관광의 성립이 교통 시설의 정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해운대 관광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은 당연하지만, 해운대 관광에는 '풍경의 발견'이라는 또 다른 근대적 요소가 개입하고 있었다. 근대적인 의미의 관광이 시작되면서 자연은 근대적 시각체험의 대상, 즉 볼거리와 풍경의 대상으로 변모하여 일종의 '문화 경관'이 되었다. 도시 문명을 주도한 새로운 인공물들(백화점, 카페, 다방, 역, 도심 거리 등) 못지않게, 공원, 동물원, 식물원, 온천, 해수욕장 등의 '자연의 인공적 변이'들이 근대적 개인들의 삶을 세련되게 분할하고 변화시켰던 것이다. 말하자면 자

---

7) 다케쿠니 토모야스 지음, 소재두 옮김, 앞의 책, p. 198.

8) 1928년 3월 5일자 동아일보는 동해남부선 개통으로 인하여 해운대온천이 요양지이자 환락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기사를 싣고 있으며, 1930년 12월 12일, 1931년 9월 3일, 1931년 11월 23일자 매일신보 및 1933년 12월 28일, 1934년 1월 30일의 부산일보도 온천 개발, 철도부설 계획, 골프장 조성 계획 등을 전하며 관광지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해운대의 장소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9) 다케쿠니 토모야스 지음, 소재두 옮김, 앞의 책, p. 198. : 제길우・김용욱, 앞의 책, p. 166.

연은 인간과의 전일적 관계에서 벗어나 '완상' 혹은 '감상'의 대상이 되었고, 자연을 향유하는 행위는 '문화'와 '오락'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다.[10] 이는 해운대온천도 마찬가지였다. 해운대가 가진 자연 환경은 '감상'의 대상이자 향유하고 싶은 '문화'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해운대온천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책자인 『해운대온천 안내(海雲臺溫泉案內)』(海雲臺溫泉合資會社, 1936)의 첫 페이지를 살펴보자.

> 일찍부터 해운대는 부산부의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1917년에는 이 분야의 권위자인 다무라 쓰요시(田村剛)[11] 박사에게 의뢰한 바 있다. 당시 현장을 조사한 다무라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운대는 **동양의 낙원**이자 **비범한 경승지**다. 이 숨겨진 **훌륭한 경치**는 극한에 이르러, 감탄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년간 머릿속에 그리던 이상향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유열(愉悅)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해운대의 풍치경관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이 말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강조는 인용자. 이하 동일.)[12]

동래온천보다 뒤늦게 개발된 해운대온천의 강조점은 '자연'이 만들어 내는 '풍경'에 있었다. 사실 해운대의 빼어난 자연 경관과 낭만은 신라시대의 유학자 최치원에 의해 이미 발견된 바 있었다. 신라 정국이 어지러울 때 합천 가야산으로 들어가려던 최치원이 해운대를 지나면서 바다와 구름이 만들어 내는 환상적인 풍경을 보고 자신의 자(字) '해운(海雲)'을 따서 바위에 '해운대'라는 글자를 새겼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최치원이 예찬한 '바다(海)'와

---

10) 권채린, 「근대적 자연 체험과 교양 담론」, 우리어문학회, 『우리어문연구』 39집, 2011, p. 517.

11) 일본의 조경가이자 조경학자. 일본의 국립공원과 해상공원 제도 확립과 발전에 힘썼다.

12) 海雲台溫泉合資會社 編, 앞의 책, p. 1.

‘구름(雲)’의 풍경은 이후 해운대를 설명하는 문구에 반복적으로 인용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천이백년 전, 신라의 고관이며 대학자인 최치원 선생이 발견한 탐승(探勝) 코스’[13]라고 일컫는 등, 최치원의 권위를 해운대 자연의 훌륭함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는 일도 빈번하였다.[14]

교통의 편리함이나 숙박 시설의 정돈 상황, 그리고 온천의 규모 등을 비교했을 때, 해운대온천은 동래온천에 크게 뒤처져 있었다. 1933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해운대온천은 동래온천에 비해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숙박시설의 최대 수용인원도 동래온천의 3분의 1 수준이었다.[15] 또한 해운대온천에 가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전차로 동래까지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해운대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교통편이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31년 6월에는 부산시내에서 동래온천과 해운대온천 두 곳을 매일 5, 6회 순회하는 유람버스가 개통되었다. 이에 따

---

13) 波止嘉生, 「慶南あの街この港」, 『文化朝鮮』 3卷3号, 日本旅行協會朝鮮支部, 1941, p. 41.

14) “해운대온천은 번잡한 동래온천과는 완전히 다른 모던한 온천으로 여름에는 해수욕장도 겸하고 있어 보양지로서 최적의 장소이다. 특히, 유, 불, 도 삼교합일론의 비조로서 알려진 조선의 철학자 최치원이 신라에 받아들여지지 못해 이곳에 표유(漂遊)한 적이 있었다. 그의 호가 해운이었기에 이 같은 지명이 생기는 등의 전통도 있다.”(山崎均一郎, 『朝鮮の展望』, 大阪星號書店, 1932, p. 6.) : “해운대라는 이름은 신라의 석학 최치원 씨가 이곳에 놀러왔을 때 명명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운은 그의 아호입니다만, 이곳이 경승지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호를 붙여 해운대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海雲台溫泉合資會社 編, 앞의 책, p. 2.) : “천년 전, 신라의 석유(碩儒) 최치원이 사랑한 곳으로 그의 호를 따서 해운대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도 하루의 청유일가단란(淸遊一家團欒)의 보양지로서 여관 설비도 잘 정비되어 있다.”(釜山觀光協會, 『釜山案內』, 釜山觀光協會, 1936, p. 28 : 釜山觀光協會, 『釜山案內』, 釜山觀光協會, 1940, p. 41.),

15) 김승, 「일제강점기 해항도시 부산의 온천개발과 지역사회의 동향」,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14, 2011, pp. 231-232.

라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자 그 동안 논의되었던 해운대시장이 그 해 9월 12일 1500평 규모로 개설되기도 했다.[16]

그러나 해운대온천은 경관의 수려함을 부각시키는 담론에 포섭되어 '훌륭한 경치'를 가진 '비범한 경승지'로 서사되어 갔고, 결국 이는 해운대를 규정하는 표준적인 담론으로 고착되었다. 예컨대 해운대는 1929년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발표한 '조선8경 16승'에도 포함되어 소개되었으며, 잡지 『삼천리』가 실시한 반도팔경 설문조사에서도 절경으로 꼽힌 바 있었다.[17] 때문에 해운대에 관한 설명은 전반적으로 낭만적인 풍경 묘사로 일관될 수밖에 없었다.

> 부산 골프링크에서 수영만에 걸쳐 소나무 가로수가 이어지는 미관과 명징한 해수의 색조, 멀리 부산항 부두에 바둑알처럼 놓인 오륙도, 정면 저 멀리 어렴풋이 모호한 초승달처럼 뜬 쓰시마의 그림자 등, 이는 **정돈된 그림과 같은 풍경**이다.[18]

> 온천장은 흰 백사장과 푸른 소나무(白砂靑松)와 가깝고, 수영만, 고운갑(孤雲岬) 등에 의해 S자 형태의 아름다운 해변을 형성하고 있어 여행자들에게 **일견삼탄(一見三嘆)하게 하는 절경**이다.[19]

---

16) 부산박물관, 『사진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하다』, 부산박물관, 2007, p. 106.

17) 「삼천리」 1호, 1929, pp. 37-38.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금강산으로, 대동강, 부여, 경주, 명사십리, 해운대, 백두산, 촉석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부터는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압록강, 두만강 등 구체적인 산과 강 이름을 가사에 담아 그 풍경을 예찬하는 신민요도 대거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타령'(1934), '금강산이 좋을시고'(1934), '복 되소서 이 강산'(1935), '조선 팔경가'(1936), '동해금강'(1937), '명승의 사계'(1937), '백두산 바라보고'(1939) 등을 꼽을 수 있다(장유정, 『오빠는 풍각쟁이야』, 황금가지, 2006, p. 251.). 이와 같이 자연 풍경의 발견과 감상, 예찬은 두루 통용되며 하나의 담론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18) 海雲台溫泉合資會社 編, 앞의 책, p. 3.

19) 海雲台溫泉合資會社 編, 앞의 책, p. 4.

흰 백사장과 푸른 소나무, 해수의 색조가 만들어 내는 자연의 색감을 포착해 내고, S자를 그리는 해변의 곡선과 멀리 보이는 오륙도, 쓰시마까지 놓치지 않는 위의 묘사는 해운대를 하나의 '정돈된 그림과 같은 풍경'으로 전경화시킨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 같은 자연 풍경에 관한 감상적 수사는 18세기 후반의 서구사회에서 시작된 낭만주의 운동과 낭만주의 취향의 결과물이다. 예를 들면 자연 관광은 이미 풍경에 대한 선호가 전제된 여행으로, 자연을 차갑고 무심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보기보다는 그것을 낭만적이거나 미학적인 견지에서 대한다. 또한 자연 풍경을 대하는 미학적 방식에는 웅장한 것과 그림 같은 것이라는 원칙이 작동하고, 이는 풍경에 대한 낭만적 취향의 일부로서 통합되었다. 특히 자연을 좋은 그림에 비유하는 감상, 즉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다'는 평가는 이상화된 자연의 출현에 대한 찬사의 말로, 예술과 자연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은 풍경을 찾아다니는 관광객들에게는 최고의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20]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해 본다면, 해운대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역시 '그림과 같은 것'이라는 평가의 원칙이 작동하고, 또 미학적 견지에서 낭만주의적 방식으로 소비하려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을 관광한다는 근대적 낭만주의 시선이 풍경화와 같은 해운대의 이미지를 낳았다는 점은 아래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백사청송(白砂青松)이라는 수식어는 해운대에 흰 모래와 푸른 소나무가 존재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러한 풍경을 출현시키기 위한 틀에 의해 거꾸로 포착된 그림인 것이다. 실제로서 존재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던 풍경을 존재시키는 전도된 풍경의 창출[21], 이것이 바로 백사청송이라는 해운대의 풍경 담

20) 닝 왕 지음, 이진형 옮김,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pp. 137-138.
21) 가라타니 고진 지음, 박유하 옮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pp. 42-46.

론을 낳은 기제였다. 다음의 글은 소설가 이광수가 묘사한 해운대의 비경(祕境)을 추체험하려는 여행객 최상덕과 그것을 만류하는 사람 사이의 대화를 옮긴 것으로, 해운대 풍경의 실제와 허구 사이의 간극을 잘 나타내고 있다.

> "海雲臺-ㄴ 무엇하려요? 무에 볼게 잇나요. 兄의 머리 속에 잇는 海雲臺마저 사라트리려거든 實物 海雲臺를 가보시요. 幻滅의 어이업는 양을 안보려거든 제발 나의 忠告를 드르시요." 그러나 十六歲時에 春園의 五道踏破記에서 엇은 海雲臺의 印象은 그만한 反對에는 사라질 것이 안이엿다.
>
> "웨요. 나는 가보렴니다. 春園이 가라처준 海雲臺를 쏙 보고야 말염니다."
>
> "하하. 春園의 五道踏破記에 속앗구려. 五道踏破記에 속은 사람 만치요. 그래 春園에게 海雲臺 旅費나 밧아 가지고 왓소. 적어도 五道踏破記에 속아서 海雲臺를 가는 이에게는 春園이 旅費만은 보태줄 責任이 잇슬걸이요."[22]

1917년 소설가 이광수는 『매일신보』의 기자 자격으로 조선 각지를 여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도답파여행(五道踏破旅行)」이라는 글을 약 두 달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 당시 이광수는 해운대를 방문하면서 "浴衣에 手巾 하나를 메고, 淸草를 헤치고 白沙를 밟으며, 海水浴場에 나갔다. 그렇게 바람도 없건마는, 굼실굼실 달려들어오다가 白沙에 부딪혀 깨어지는 물결에는 그래도 大海의 面目이 있다. 透明한 海波를 헤치고 텀벙 뛰어들어 두 팔로 滄浪을 긁어 당기며, 물결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맛도 그럴 듯하였다. 알맞추 따뜻한 세모래판에 半만큼 몸을 파묻기도 하고, 이리 데굴

22) 崔象德, 「春風에 불니여」, 『신민』 4권 25호, 1927(한국민족문화연구소, 『(잡지로 보는)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견 5 경상도 I』, 국학자료원, 2013, p. 176에서 재인용.)

저리 데굴 다니는 맛도 그럴 듯하며, 少年적 일을 생각하여 모래로 동을 막아 물결과 싸움을 하는 것도 興味가 있었다. (중략)海雲臺의 眞景은 夜에 있다. 夜中에도 月夜에 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았다"[23]고 읊은 바 있다. 이광수의 기행문이 의도하는 바는 독자들에게 해운대에 관한 예비적 지식과 감상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 특정 장소에 대한 묘사와 감상이 공적으로 언급되고 나면, 그 장소는 숭배와 순례의 대상이 되어, 관광객들은 낭만주의자들과 같은 지점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게 된다.[24] 위의 인용문에서 '나'가 '春園이 가라처준 海雲臺를 쏙 보고야 말염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광수가 본 풍경에 자신의 감성을 중첩시키려는 욕구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림과 같이 묘사된 자연 풍광은 낭만적 환상을 경유한 담론의 결과물이기에 '어이없는' '환멸'을 유발하고 '속았'다는 감정마저 품게 만든다. 말하자면 '백사청송'이라는 허구가 실제를 압도할 때 벌어지는 간극을 위의 글에서는 잘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와 허구 사이의 낙차, 즉 '幻滅의 어이업는 양'은 사적인 토로에 지나지 않을 뿐, 균일화된 관념적 가상 풍경에 흡수되어 '동양의 낙원', '비범한 경승지', '이상향', '정돈된 그림'이라는 수사를 낳아 해운대에 관한 낭만적인 환상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고 만다.[25]

---

23) 이광수, 「五道踏破旅行」, 『춘원문학』, 성한출판, 1991, p. 367.

24) 닝 왕 지음, 이진형 옮김, 앞의 책, p. 140.

25) 해운대온천에 관해서는 몇 가지 폐탕(廢湯) 전설이 남아 있다. "온천의 위치가 해변에 있었기 때문이 일찍부터 왜인들이 내욕하여 잡폐(雜弊)를 저지르기 때문에 폐탕하였다는 설과 문둥이들이 이곳에 목욕하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하여 각처의 문둥이들이 이곳에 몰려들어 부락민들이 폐탕하였다는 설, 또 이곳이 이전에는 경상도 좌수영이 바로 옆에 있었으므로 수리(水吏)이하 각 관원들이 내욕하여 민폐를 끼치므로 폐탕하였다는 설들이 있다."(제길우・김용욱, 앞의 책, p. 117.) 수려하고 정돈된 해운대 묘사와는 대비되는 이 같은 담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운대를 서사할 때에 폐탕 전설은 후면에 감춰지고 만다.

낭만적인 해운대의 자연 풍광이 직접적으로 전달, 공유되는 것은 엽서나 사진과 같은 시각적인 매체를 경유할 때였다. 말하자면 해운대의 '정돈된 그림과 같은 풍경'은 실제 '그림'으로 유통되면서 그 실정성을 점차 확보해 갔던 것이다. 해운대의 절경을 옮겨 놓은 복제품이 시각적으로 전시될 때 해운대의 자연과 낭만은 한층 증폭되며, 이와 같은 '정돈된 그림'이 유포되고 확대됨에 따라 해운대 경승지 담론은 더욱 강화된다.



해운대온천 풍경



『해운대온천 안내』(海雲台溫泉合資會社, 1936) 표지

각기 다르지만 서로 유사한 이들 이미지는 해운대를 아직 보지 않은 이들에게도 해운대 자연에 대한 심리적 감각을 공유하도록 유인한다. 다시 말해 시각 매체는 언어적인 설명보다 분명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여 동일한 해운대 '상(像)'을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그림엽서라는 미디어는 발신자나 수신자 모두에게 이미지 고착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엽서를 구입하거나 쓰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엽서를 받는 사람도 물리적 거리를 훌쩍 뛰어 넘어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해운

대를 여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 이미지는 여행안내서나 엽서, 사진 등의 매체를 통해 선행되고, 허구의 이미지는 실제의 풍경을 추체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상기되면서 해운대의 '리얼리티'는 확보되어 간다.

이처럼 해운대 관광에는 낭만적인 '풍경의 발견'이라는 근대적 시선이 개입하고 있었고, 사진이나 엽서와 같은 시각 매체가 해운대 이미지에 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자연 감상'이 도출되고 있었다. '자연'을 '관광'한다는 근대적 문화 기호가 창출되던 시대적 의미망 속에서 해운대는 널리 소비되어 갔던 것이다.

3. 보양 여행과 가족 여행의 메카, 해운대온천

온천 여행의 주된 목적이 휴양과 보양에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온천 여행을 권장하는 담론이 근대 보건 위생 시책과 연동되어 있었다는 점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메이지 이후의 일본은 위생과 보건 의식을 강박적으로 고양시키고 체격의 발달과 체력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었다. 서양과 비교했을 때 일본인의 체격은 왜소할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높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일본인의 신체와 건강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여행이라는 취미의 권장 역시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처방이었다. 예를 들면 1922년의 『야구계(野球界)』 증간호 『일본전국피서여행안내』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 **국민의 체력 향상, 국민정신의 미적 도야의 목적을 관철하는 하나의 방법은 국민에게 여행 취미를 고취하는 것에 있다.** 유럽과 미국인은 약간의 여가를 이용해 한 가족이 모여 소풍을 가거나 여행도 한다.

우리 국민도 유럽, 미국인처럼 약간의 여가를 이용해서 한 가족이 모여 유쾌한 소풍을 가거나 즐거운 여행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여행은 체력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정신을 미적으로 도야하고 지식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사회생활이 복잡하면 할수록 정신에 위안을 주는 여유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행을 하고 산천 자연의 풍경을 접하는 것만큼 정신에 위안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세상이 문명적으로 발달하면 할수록 보양적인 여행이 필요해진다.**(요코이 가쿠조(横井鶴城), 「최신 여행의 마음가짐」)[26]

이 책에는 교토, 가마쿠라 등과 같은 유적지나 자연 경치가 뛰어난 곳, 해수욕장, 온천지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서문에는 유럽이나 미국을 모델로 한 가족 여행을 장려하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도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고, 역병을 비롯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도시를 떠나 체력의 향상과 정신의 위안을 도모하는 가족 여행, 그 가운데서도 자연을 접하는 보양 여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1910년대부터 2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는 전국의 온천지를 한 권에 정리한 대중적인 가이드북이 대량으로 출판되었다. 그 책들의 타이틀 중 많은 수가 '보양유람'이었고 이 같은 정보를 기초로 보양과 유람여행의 목적지로서, 특히 여름에는 피서를 겸하여 온천을 방문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된다.[27]

일본 철도성이 만든 『온천안내』라는 책자는 일본 전국의 온천을 소개한 것으로, 여기에 식민지였던 조선, 만주, 대만의 온천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31년부터이다. 조선의 경우에는 동래온천·해운대온천(경상남도), 유성온천·온양온천(충청남도), 신천온천

26) 세키도 아키코 지음, 허석 외 옮김, 『근대 투어리즘과 온천』, 논형, 2009, p. 84에서 재인용.

27) 세키도 아키코 지음, 허석 외 옮김, 앞의 책, p. 85

·삼천온천·달천온천(황해도), 용강온천·양덕온천(평안남도), 온정리온천(강원도), 주을온천(함경북도) 등 모두 11곳이 소개되었다. 이 책자에는 각 온천에 대한 각종 정보들, 예를 들면 교통편이나 여관, 온천의 수질과 효능, 온천의 특징 등도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경상남도의 두 온천, 즉 동래온천과 해운대온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동래온천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면 온천리
교 통: 경부본선 부산역에서 북쪽으로 12km. 전차, 자동차 편을 이용.
수질효능: 약 식염온천, 수온 50도. 위장병, 부인병, 피부병, 류마티스 등.
특 색: **행락에 적합.**
여 관: 逢萊館, 鳴子, 荒井, 脇 , 靜の家,東萊館, 延壽館.
숙박료 3월 50전 이상 7원

조선 제일의 온천으로 교통편도 좋다. 뒤로는 금정산(소금강령), 앞으로는 동래천을 두고 있으며 사계절 모두 기후가 온화하여 특히 추위를 피하기 적합하다.

부산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알려졌다. 여관 및 기타 제반 설비도 훌륭하여 내지인과 외지인 모두 많이 찾는다. **濱場 부근의 요정 등에서는 기생의 교음이 아름답게** 들린다.

부근에는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시대의 사적이 많다. 동래성터(뿐만 아니라), 부산의 부산성 터, 고니시성 터 등이 있어 당년의 전흔을 남기고 있으면서도 여행객의 마음을 끄는 면이 있다.[28]

해운대온천 경상남도 동래군 남면 우리 해운대
교 통: 동래온천에서 남쪽으로 14km. 자동차 편을 이용.
수질효능: 알카리성 단순 식염온천. 수온 47도 내지 50도. 위장병, 부인병, 피부병, 선병(腺病), 신경쇠약 등.
특 색: **요양에 적합.**

28) 鐵道省,『溫泉案內』, 博文館, 1931, pp. 444-445.

여　　관: 海雲樓. 숙박료 3원 50전 내지 7원.

부산항에서 동북쪽으로 약 16 킬로미터 떨어진 해변에 위치하고 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만 일본해에 면하고 있어 멀리 쓰시마를 조망할 수 있다. 기후는 온화하여 피서와 피한에 적합하며 길게 이어진 백사청송(白砂靑松) 해변은 여름에는 해수욕객으로 붐빈다. 온천은 밭 한가운데서 풍부하게 용출되고 있으며 **욕사(浴舍) 설비도 좋다. 낙수탕, 가족탕, 모래탕도 마련되어 있다.**[29]

위의 기술을 보면, 동래온천과 해운대온천은 '행락'과 '요양'으로 그 특징이 분명하게 나뉜다. 일찍부터 이름이 알려진 동래온천의 경우, 개항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가운데 일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여관과 요정, 상점 등의 위락시설도 늘어나, 1926년이 되면 여관과 요정 등이 26개 정도에 이르게 된다.[30] 각종 위락시설과 음식점, 요리점의 영업이 활발해지면서 동래부 관기 출신들이 동래권번이라는 조합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동래온천-행락(유흥)-요정-기생이라는 연쇄적인 환기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해운대온천은 '요양'과 '일가단란(一家團欒)'에 그 방점이 있었다. 해운대온천을 설명할 때 백사청송이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앞의 장에서도 확인한 바 있지만, 거기에 더해 해운대온천은 보양이나, 요양, 가족 단위의 여행지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濱場 부근의 요정 등에서는 기생의 교음이 아름답게 들린다"고 하는 동래온천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이다.

1929년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발행한 『부산안내』를 보면 해운대

29) 鐵道省, 앞의 책, p. 445. 1940년에 철도성이 발행한 『溫泉案內』을 보더라도, 동래온천은 '위안용(慰安向), 피한지(避寒地)'로, 해운대온천은 '보양용(保養向), 피서·피한지'로 소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鐵道省, 『溫泉案內』, 博文館, 1940, p. 280.).

30) 김승, 앞의 논문, p. 215.

온천은 “동래읍에서 동쪽으로 2리 떨어진 바닷가에 있다. 동래에서 자동차로 달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차아(嵯峨)한 산들과 백사청송, 바위에 부딪쳐 부서지는 크고 작은 파도,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 해운대의 조망은 특히 아름답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서도 최적의 장소이고 새로운 피서지로서 온천, 해수욕, 낚시 등 가족 단위의 보양객들로 붐빈다”[31]고 설명되어 있다. ‘가족 단위의 보양객’들이 찾는 곳으로 해운대온천을 서술하는 방식은 다른 책자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운대 해안에 용출하는 가족용으로 적합한 좋은 온천으로 부산에서 자동차로 갈 수 있다.”[32], “해운대는 온천 용출이 풍부하여 온천 풀장을 개설하였고, 화양식(和洋式) 여관 설비도 완비되어 있다. 피서지를 겸한 온천장으로서 가족을 동반하는 보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33] 등과 같이 해운대온천은 ‘가족용으로 적합한 좋은 온천(家族向の良溫泉)’, ‘가족을 동반하는 보양객(家族伴れの保養客)’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홍보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1930년부터 1932년 사이의 온천 이용객을 살펴보면 두 온천의 특색은 분명하게 구분된다. 동래온천의 경우 연간 평균 이용객은 6만 7천 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남자는 3만 9천 명 내외, 여자는 2만 8천 명 정도였다. 남자 이용객의 수가 1만 명 정도 많았던 셈인데, 이는 동래기생이나 게이샤(芸者)와 관련된 남성 중심의 여흥 문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4] 같은 시기의 해운대온천은 연간 평균 이용객이 4만 명 정도이며, 그 가운데 남

31) 朝鮮總督府鐵道局, 『釜山案內』, 朝鮮總督府鐵道局, 1929, p. 12. : 朝鮮總督府鐵道局, 『釜山 : 大邱・慶州・馬山・鎭海』, 朝鮮總督府鐵道局, 1932, pp. 17-18.

32)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旅行案內』, 朝鮮總督府鐵道局, 1938. (접이식 소책자로 페이지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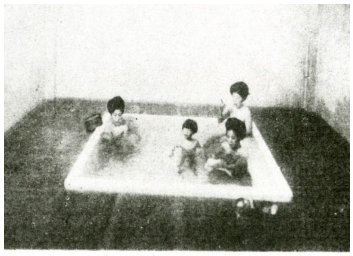
33)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旅行案內記』, 朝鮮總督府鐵道局, 1934, p. 8.

34) 김승, 앞의 논문, p. 227.

자는 2만 천 명, 여자는 1만 9천 2백 명 정도였다. 온천 이용객의 성별 구성만을 놓고 본다면, 해운대온천이 동래온천보다 이용객의 성비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35] 이와 같이 동래온천이 남성 중심의 유흥 또는 행락 위주의 온천이었다면, 해운대온천의 경우에는 남녀 동반을 기본으로 한 요양지, 혹은 보양지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해운대온천을 소개하는 사진에도 역시 가족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하고 있는 아래의 사진은 소시민 가정의 단란함과 가족애를 강조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철도국이 소개하는 해운대온천
(『半島の近影』 朝鮮總督府, 1937)



해운대온천 가족탕 사진
(『해운대온천 안내』 소책자)

한편, 『온천안내』에서 온천의 특색을 행락과 요양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1931년 경부터였다. 1931년 판 『온천안내』의 일러두기에는 "종래의 온천 이용 상태를 보면 요양을 목적으로 한 것과 행락 유람을 주로 하는 것의 양자가 있지만, 그 대부분은 행락적인 것으로 그중에서도 교통이 매우 편리한 온천장은 도회지의 유곽의 연장으로 보이는 곳도 적지 않다. 그 때문에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여 '특색'란을 마련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구별하는 것에 힘썼다"라고 기술해 놓았다. 즉 각각의 온천지별로 '요양'과 '행락'

35) 김승, 앞의 논문, p. 232.

중 어느 쪽의 경향이 강한지를 구분하여 '특색'으로 기재하려고 했던 것이다.[36] 이미 1920년대부터 일본인의 신체와 건강, 위생 관리를 위하여 취미로서의 여행이 강조되고 있었지만, 1930년대가 되면 '도회지의 유곽의 연장'으로서의 온천 여행이 아니라 청유(淸遊), 즉 속되지 않는 놀이로서의 온천 여행이 더욱 권장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온천안내』에서 '요양'과 '행락'을 구분하는 것은 1920년 판, 1927년 판에서는 볼 수 없는 정보다. 게다가 일람표에는 '온천정보, 피서, 피안, 해수욕, 등산, 스키, 스케이트, 꽃 명소, 단풍' 등의 항목도 부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온천안내』에서는 온천의 효능뿐만 아니라 피서, 해수욕, 등산, 스키, 스케이트 등을 새로운 관광투어의 구성요소로서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37]

이와 같은 현상은 1930년대 이후 교통과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손님 획득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되는 것과도 연동된다. "요양의 목적 외에 최근 사회생활이 바빠짐에 따라, 평소의 번잡한 생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몸을 쉬게 함으로써 심신의 휴양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온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미우라 나오히코(三浦直彦), 「온천과 보건(溫泉と保健)」, 1932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기에는 "심신의 휴양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보양객이나 행락객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온천조합·여관조합 등은 신문에 광고를 싣거나 포스터나 전단지를 작성하고 박람회나 전람회에 출품하는 등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38]

"사회생활이 바빠짐에 따라 평소의 번잡한 생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몸을 쉬게 함으로써 심신의 휴양을 도모하고, 건강을

36) 세키도 아키코 지음, 허석 외 옮김, 앞의 책, p. 150.
37) 세키도 아키코 지음, 허석 외 옮김, 앞의 책, p. 150.
38) 세키도 아키코 지음, 허석 외 옮김, 앞의 책, p. 111.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온천을 방문"하는 자들이 증가한 것은 단순히 온천의 이용자가 수적으로 늘어난 것만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는 가족의 발견, 가족 여행의 증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가정은 노동의 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이기에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자 할 때 가정은 하나의 피난처가 되며 같은 맥락에서 가족 여행이 기획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온천은 더 이상 목욕 문화를 대변하는 장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를 염두에 둔 종합적인 레저시설로서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천의 효능도 중요하지만 해수욕이나 등산, 스키, 스케이트, 꽃 명소, 단풍 등의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고 있었던 점도 온천의 성격이 근대 관광지로 확장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해운대온천 역시 골프장이나 온천 풀장, 당구장 등과 같은 최신식 근린 시설을 홍보하고, 이를 해운대 온천의 특색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해운대온천 안내』(海雲台溫泉合資會社, 1936)에 소개된 온천 풀장과 골프장

근대적인 관광 패러다임은 그림과 같은 자연 풍경을 발견하게 만들고, 소시민 가정이 건전하게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의 방문을 권유했다. 이 같은 인식이 노동과 휴식, 도시와 시골, 사회와 가정, 인공과 자연이라는 근대적 이분법을 기초로 한 것임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해운대온천이 주목을 받은 것도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였다. 온천 이용이 행락과 요양으로 분명하게 구분될 즈음, 그리고 온천이 대중화되어 행락(유흥)에서 요양(건강)으로 비중이 옮겨 갈 즈음에 해운대온천은 새로운 휴양지이자 보양지로서 발견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양 제일의 경승지에서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느끼고 그 곳에서 가족들과 단란한 한 때를 보내는 비일상의 장소로서 해운대온천은 향유되고 있었다.[39]

4. 두 겹의 근대-결론을 대신하여

해운대온천이 근대적 의미의 미적 공간으로 발견되고 또 소시민 가정의 여행지나 휴양지로서 주목받던 시기에 일본인들이 다수 거주하던 동구, 중구 주변(원도심)에는 또 다른 층위의 근대가 전시되고 있었다. 예컨대 1934년에 준공된 '근대과학미를 자랑하는 도진도개교 부산대교[40]'는 '동아의 대현관, 세계교통의 요충 조선 남단의 근대도시 항구 부산'의 훌륭한 볼거리로서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꼽혔다. 1936년에 완성된 부산부청(釜山府廳) 또한 '대부산

39) 물론 해운대온천이 요양지나 휴양지로서만 기능했던 것은 아니다. 식민지 시대에 본격적으로 개발된 해수욕장이 소비와 향락의 공간으로 존재한 것처럼, 해운대해수욕장도 역시 같은 맥락 속에 있었다. 여름 행락지로서 해수욕장은 여성의 에로틱한 나체를 진열하며 부르주아의 화려한 소비 향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기에 부정적이지만 동시에 지식인 부르주아 계층의 예의를 차린 사교나 청년의 활기가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세련된 취향을 나타내는 이중적인 공간으로 서사화한다. 상품문화의 향락이 극대화된 공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혹적이며 수영이나 해수욕이라는 위생, 건강, 취미 문화가 결부될 때 그곳은 미학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김주리, 「식민지 시대 소설 속 해수욕장의 공간 표상」,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58호, 2010, p. 168.).

40) 영도대교의 당시 명칭은 부산대교이다.

(大釜山)의 부청사로서 부끄럽지 않는' '근대식 3층 모던(modern) 양관(洋館)'으로 만들어 졌으며, '동양 제일의 위용인 도진교(영도대교)와 나란히 대부산을 표징(表徵)하는 부산 제일의 백아관(白亞館)'[41]으로 서사되었다. 다리의 일부가 하늘로 솟는 영도대교의 위용과 근대식 양관으로 신축된 부산부청의 규모는 일본의 근대 기술과 이성을 상징적으로 과시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어서 1937년에는 이 지역에 미나카이(三中井) 백화점까지 들어서게 된다. 미나카이포목점(三中井呉服店)이라는 이름으로 1916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이 백화점은 1926년 신관을 개점하여 사세를 확장해 1937년 9월에는 부산부청 옆에 지상 5층의 빌딩을 갖추고 이전하였다.[42] 이 때 그 명칭도 포목점에서 백화점으로 변경했다. 백화점이 준공된 이후에는 '부산의 마천루', '부산의 대도시 면목을 구비할 일대 백화점 출현', '백화점 외관은 부산 최고층 건물' 등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근대 건축물로 소개되었다.[43] 또한 백화점 내부에 설치된 승강기는 부산 최초의 것으로 당시 발간되던 엽서에 소개될 정도였다.[44] 이와 같이 식민지 시기의 부산 원도심 주변은 식민자들의 권력이 확장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일본식의 근대는 재현, 전시되고 있었다.

한편 해운대 지역에서는 기술이나 규모로 압도하고자 하는 근대적 심벌들, 즉 영도대교나 부산부청, 미나카이백화점 등과는 구별

41) 『부산일보』, 1933.1.7, 1면.

42) 『동아일보』에는 1937년 9월 20일에 영업을 개시한다고 하고, 『조선총독부관보』에는 1938년 1월 18일에 이전하였다고 한다(『동아일보』, 1937.9.15, 4면(조간); 「商業及法人登記」, 『조선총독부관보』 제3343호(1938.3.11.).

43) 『동아일보』, 1937.9.15, 4면(조간); 『부산일보』, 1935.8.31, 3면.

44) 식민지시기에 만들어진 부산의 건축물이 가지는 함의와 표상 정치에 대해서는 조정민·양흥숙, 「복원과 개발로 만들어지는 부산의 문화지형-영도대교와 롯데타운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72, 2012, pp. 369-405 참조.

되는 '자연'적 휴양 시설이 조성되고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운대온천을 중심으로 한 '자연'의 발견이란 어디까지나 근대화된 '자연 풍경'을 의미함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자연을 감상하고 그것을 여가 활동의 일부로 승화시키는 행위는 근대적 관광 패러다임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고, 또 온천이라는 특정 공간으로 이동하여 일정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노동(사회)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근대적 개인의 욕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원도심에서 진행되었던 문명화된 근대적 공간 조성과 해운대온천에서의 자연의 발견은 문명과 자연이라는 이분법 구도의 대척점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가적인 근대적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이 두 겹의 근대는 식민 도시 부산의 공간을 재편하고 있었고, 오늘날의 부산의 문화 경관 혹은 관광 지도를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식민 도시를 지탱하는 질서와 권력에 의해 창출된 공간이 이후 어떠한 형태로 연속, 단절되었는지를 추적하는 논의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동아일보』, 『매일신보』, 『부산일보』, 『삼천리』, 『조선총독부관보』, 『文化朝鮮』
朝鮮總督府鐵道局, 『釜山案內』, 朝鮮總督府鐵道局, 1929.
朝鮮總督府鐵道局, 『釜山 : 大邱・慶州・馬山・鎭海』, 朝鮮總督府鐵道局, 1932.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旅行案內記』, 朝鮮總督府鐵道局, 1934.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旅行案內』, 朝鮮總督府鐵道局, 1938.
鐵道省, 『溫泉案內』, 博文館, 1931.
鐵道省, 『溫泉案內』, 博文館, 1940.
釜山觀光協會, 『釜山案內』, 釜山觀光協會, 1936.

釜山觀光協會, 『釜山案內』, 釜山觀光協會, 1940.
海雲台溫泉合資會社編, 『海雲台溫泉案內』, 海雲台溫泉合資會社, 1936.
山崎均一郎, 『朝鮮の展望』, 大阪星號書店, 1932.

2. 논문

권채린, 「근대적 자연 체험과 교양 담론」, 우리어문학회, 『우리어문연구』39집, 2011, pp. 515-548.
김동철, 「근대 부산의 교통 발달과 기록-기차와 전차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11, 2011, pp. 253-271.
김승, 「일제강점기 해항도시 부산의 온천개발과 지역사회의 동향」,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14, 2011, pp. 215-232.
김주리, 「식민지 시대 소설 속 해수욕장의 공간 표상」,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58호, 2010, pp. 157-188.
변광석, 「한말-일제강점기 동래지역에서의 공간 포섭과 지역세력의 대응」, 부경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29, 2011, pp. 295-326.
양흥숙, 「개항 후 초량사람들과 근대 공간의 형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44, 2012, pp. 211-249.
오미일, 「개항장과 이주상인-개항장도시 로컬리티의 형성과 기원」,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47, 2008, pp. 40-79.
전성현, 「일제시기 동래선 건설과 근대 식민도시 부산의 형성」,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12, 2009, pp. 225-269.
조정민 · 양흥숙, 「복원과 개발로 만들어지는 부산의 문화지형- 영도대교와 롯데타운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72, 2012, pp. 369-405.

3. 단행본

가라타니 고진 지음, 박유하 옮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닝 왕 지음, 이진형 옮김,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다케쿠니 토모야스 지음, 소재두 옮김, 『한국온천이야기』, 논형, 2006.
부산박물관, 『사진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하다』, 부산박물관, 2007.
세키도 아키코 지음, 허석 외 옮김, 『근대 투어리즘과 온천』, 논형, 2009.
이광수, 『춘원문학』, 성한출판, 1991.
장유정, 『오빠는 풍각쟁이야』, 황금가지, 2006.

제길우・김용욱, 『부산온천에 관한 연구』, 친학사, 1964.
조성운 외, 『시선의 탄생, 식민지 조선의 근대관광』, 선인, 2011.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잡지로 보는)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견 5 경상도 Ⅰ』, 국학자료원, 2013.

4. 사진

海雲台溫泉合資會社編, 『海雲台溫泉案內』, 海雲台溫泉合資會社, 1936, pp. 4-5, 표지.
朝鮮總督府鐵道局, 『半島の近影』, 朝鮮總督府, 1937, p. 3.
吉田市次郎, 『釜山寫眞帖』, 博文堂書店, 1929, p. 21.

[Abstract]

Beginning of Haeundae Tourism

- Development and Representation of Haeundae Hot Spring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Cho, Jung-Min · Lee Soo-Yeol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process of Haeundae (해운대; 海雲臺) as an tourist attraction and in particular to examine the space production and representation by a colonizer Japan with a focus on the port-opening and Japanese colonial periods. As described in detail below, the colonizer's romantic view was projected to th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process of Haeundae as a spa town and tourist attraction. Based on the view, Haeundae had been constructed as a birthplace of recreation travel (help promotion) and family trip (discovery of family). Moreover, Japan aimed to realize different layers of modern times by constructing modern resort facilities different from modern symbols shown in the old downtown of Busan such as Yeongdo Bridge (영도대교; 影島大橋) and Fuzan City Hall (부산부청; 釜山府廳). This shows that two different layers of modern times were realized in the old downtown and Haeundae. As described below,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Haeundae tourism and furthermore to examine how Haeundae was narrated and reproduced as a modern space. This will help to examine the locality of a colonial city Busan compositively and sterically.

Key words: Haeundae Hot Springs, Modern spa attractions, Romanticism, Nature, Recreation travel, Family trip

조정민
소속: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공동연구소동 807-6
전화번호: 051-510-7647
전자우편: jungjung21kr@naver.com

이수열
소속: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교수
주소: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27 국제해양문제연구소 316호
전화번호: 051-410-5279
전자우편: sosoyo78@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5일 게재 확정함.